

삼성중·상용차 특별감리 요청

심상정 의원·시민단체, '삼성 분식 의혹' 관련

“조선업 특유 진행률 채권 조작 가능성 높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과 시민단체가 10일 전 삼성그룹 법무팀장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그룹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에 삼성상용차와 삼성중공업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를 공식 요청했다.

심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삼성상용차의 1997회계연도 분식회계 및 삼성중공업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감리요청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심 의원과 김상조 교수는 “삼성중공업이 회사가 청구권을 보유하지 않은 매출채권인 진행률채권을 조정해 대규모 분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진행률채권이란 예를 들어 조선소가 2년 인도 조건으로 1만원 가격에(예정원가 8천원) 선박 건조를 수주해 연내에 계약금액의 30%인 3천원

을 중도금으로 받기로 했는데 연말 선박조조가 50% 진행됐을 경우 중도금 3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원을 매출채권으로 회계처리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감리요청서에서 “삼성중공업의 진행률채권 규모가 2000년 1조5천억원으로 전체 매출채권(1조7천억원)의 88.2%에 달했다”며 “이는 회사가 진행률 조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되지 않은 매출채권을 과대계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라며 감사보고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어 “진행률채권 규모는 2003년까지 매출의 40%였으나 분식회계에 따른 증권집단소송 유예기간이었던 2006년에 매출의 4%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과거에는 진행률 조정을 통해 매출과 매출채권을 인식하던 것이 이후에는 해소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삼성중공업의 매출총이익률이 1996년 12.12%로 조선 3사의 평균보다 5.83%포인트 높았으며 2000년까지 동종업계의 평균을 웃돌았다”며

“매출총이익률은 손실이 발생하는 선박의 원가를 다른 선박의 원가로 조정해 진행률채권으로 계상하는 등의 진행률 조정을 통해 매출을 부풀릴 때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삼성중공업의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이 ▲1998년 105억7천300만원 ▲1999년 540억5천300만원 ▲2000년 1천368억9천500만원 등으로 급증했다”며 “2000년 대손상각비가 급증한 것은 과거 누적된 대손을 한꺼번에 인식한 결과로, 과거 분식회계를 확인하는 방증의 하나”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또 97년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 의혹의 근거로 △통상 판매관리비에 포함되는 경영지원팀 등 지원부서(97억 8천600만원)의 비용을 자산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했으며 △기타경비로 처리돼야 할 일반관리비(23억3천600만원)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됐고 △1997년 매출채권의 회수기일이 평균 15.9개월로 채권회수가 어려웠음에도 대손충당금을 매출채권의 0.07%인 1억5천만원만 설정해 19억2천500만원의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했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은 이와



심상정 민노당 의원과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을 방문, 삼성상용차와 삼성중공업의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감리요청서를 취재진에게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 “일단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볼 것”이라면서도 “재무제표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한 의혹 제기 수준으로 이런 식으로 감리요청을 하면 살아남 기업이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美 ‘서부 개척시대’ 회귀? 잇단 총격사건에 불안 고조

최근 미국 곳곳에서 인명피해를 수반하는 총격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서부 개척시대’가 다시 돌아온게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건 발생 장소가 도로변 뿐 아니라 쇼핑몰이나 교회, 학교 등으로 무차별적 암살을 보인다는 점은 시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요인이다.

미국 언론들의 9일 보도에 따르면 콜로라도주에서 이날 2건의 총격사건이 동시에 발생, 범인 1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콜로라도주 덴버 교외에 자리잡은 선교사 교육센터에서의 총격으로 2명이 숨진데 이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대형 교회에 난입한 괴한이 소총을 발사, 교회 경비원에 의해 사살되기 전까지 4명의 목숨을 빼앗았다.

앞서 지난 5일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에서는 20대 청년 한명이 연말 쇼핑을 위해 몰려든 사람들

소도시 크랜덴의 한 가정집에서 비빈인 경관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6명이 목숨을 잃는 참사가 발생했고 며칠 뒤에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5명이 다쳤다.

지난 9일 델라웨어 주립대학교 교정에도 총격사건이 발생해 학생 2명이 부상했고 지난달 28일에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 폭동의 도화선 노릇을 했던 로드니 킹 씨가 총격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32명이 사망했던 지난 4월의 버지니아공대 총격사건 이후 총기 관련 사건에 대한 미국인들의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총격사건은 수그러들 줄 모르는 양상이다.

인구 3억명의 미국에서는 개인 소지 총기 수가 2억정을 넘어설 정도로 총기 보유가 보편화돼 있지만 때때로 사고에도 불구하고 총기 규제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이렇다할 결론이 도출되지는 않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철 차명계좌 3개 더 확인”

檢, 총 7개 계좌 추적중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10일 김용철 변호사 명의의 차명계좌 3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7개의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추적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감찰본부(본부장 박한철 검사장)의 김수남 차장검사는 “김 변호사가 지목한 20여개 ‘차명의심 계좌’ 가운데 계좌추적과 당사자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3개가 차명계좌로 추가 확인돼 입출금 내역 등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삼성증권 압수수색에서 단서를 확보한 100여개 ‘차명의심 계좌’와 참여연대 등이 낸 고발장에서 주장한 4개 ‘차명 계좌’, 김 변호사가 ‘차명의심 계좌’라고 지목한 20여개 계좌에 대해 수사에 왔다.

이번에 확인된 차명계좌는 모두 증권사에 개설됐으며,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100여개 ‘차명의심 계좌’와 겹치

는 부분은 없다고 김 차장은 설명했다.

김 차장검사는 “총 7개의 차명계좌 중 일부는 서로 연결돼 있다. 계좌끼리 자금이 오고 간 흔적이 있다”라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자금이 흐른 정황은 아직 확인 못했다. 7개 계좌의 성격이 뭔지, 어떤 목적으로 관리됐는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낼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들 계좌의 개설 시기나 현재 잔고 규모, 최근 폐쇄됐는지 여부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 20여개 계좌 중 나머지 10여개는 차명계좌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상태라고 그는 전했다.

검찰은 나머지 삼성증권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100여개 ‘차명의심 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은 아직 큰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김용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검찰에 출석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56년만에 첫 남북 정기열차 운행

‘문산~봉동’ 개성공단 화물열차 오늘 개통

남측 문산역과 북측 봉동역을 오가며 개성공단 화물을 실어나를 경의선 열차가 11일 개통된다.

1951년 6월12일 서울~개성 간 운행이 중단된 이후 56년 만에 경의선 열차가 남북을 가로질러 상시 운행을 하는 것으로, 지난 5월 시험운행을 실시한 지 7개월만이다.

개성공단 화물열차는 이날 오전 7시 문산역을 출발, 도라산 남측 출입사무소(CIQ)에서 간단한 수속을 거친 뒤 8시2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통과해 8시40분께 관문역에 도착한다. 이 열차는 오전 11시37분 관문역을 출발해 남측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연합뉴스

관문역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권호용 북측 내각 책임참사 등 남북 인사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도 열린다.

기관차 1량, 화차 10량, 차장차 1량 등 총 12량으로 구성된 화물열차는 이날 첫 운행에서 도로 경계석과 공단 건설 자재 등을 싣고 올라가고 신발, 의류, 시계 등 개성공단 생산품을 반입한다. /연합뉴스



네스토르 키르초너(오른쪽)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부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왼쪽) 후임 대통령 당선자가 지난 9일 열린 대통령 임명식 전야 만찬장에서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페르난데스 아르헨 대통령 취임

전세계 여성 정상 9명으로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으로 전 세계에서 여성 정상이 9명으로 늘게 됐다

페르난데스 당선자는 남편인 키르초너 현 대통령에 이어 아르헨티나 역사상 첫 선출직 부부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세우면서 오는 2011년까지 ‘탱고 공화국’을 이끌게 된다. /연합뉴스

페르난데스 당선자 외에 여성 정상으로는 마리 매컬리스 아일랜드 대통령,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미셸 바첼레트 칠레 대통령, 엘렌 존슨 설리프 라이베리아 대통령, 프라티바 파틸 인도 대통령,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총리 등이 있다. /연합뉴스

WP ‘힐러리도 한때 해병대원 꿈꿨었다’

“힐러리 클린턴도 한때 귀신잡는 해병대원을 꿈꿨다?”

미국 민주당 대권경쟁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주)이 지난 1975년 베트남전쟁 중전 직후 해병대 입대를 지원했다가 거부당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9일 미 대선후보를 소개하는 연재기사에서 보도했다.

클린턴 의원은 젊은 시절 베트남전쟁을 열렬히 반대했던 반전론자였다는 점에서 이 같은 ‘숨은 이력’은 특히 눈길을 끌었다. 포스트에 따르면 클린턴 의원은

1975년 가을 아칸소주의 모병사무소를 찾아가 ‘A Few Good Men(해병대원 모집 문구)’이 되기를 자청했으나 당시 징병관은 안경슨 법대교수였던 클린턴 의원에게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은 너무 늙었고, 여자”라면서 거부했다는 것. 클린턴 의원의 이런 ‘이성 과거’는 그의 자서전에서조차 소개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국제약품 '큐텐'이란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특히 '소아'가 많은 좋은 약으로 사랑을 받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손은 바로 사랑입니다!

어릴 적, 배가 아플 때, 엄마 손은 복통약이었고, 머리 아플 때는 두통약이고 해열제였습니다. 아플 때마다 사랑으로 낮게 하는 엄마의 손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의 사랑이 깃든 약손처럼,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좋은 약이 됩니다.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큐텐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 www.kyuten.com

국제약품 본사(서울) 080-022-2200